



[금융] 인터넷은행 '수장찾기' 금융+정보통신기술 융합할 인재 어디에 05



Life

[라이프] 5km 반경지역 1시간 내 배달 롯데마트 '배송혁신' 1



#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서울시, 집회 금지구역 확대

## 종로1가·광화문광장 등 집회 금지 위반 시 최대 300만원 벌금형

###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지속적 감시로 감염병 확산 방지"

서울 지역에서 하룻밤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넘게 쏟아지자 서울시가 도심 내 집회금지 확대, 역학조사 강화 등 한층 강력해진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26일 0시부터 서울시내 집회 금지지역을 기존 광화문·청계·서울광장과 그 주변 차도·인도에서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와 주변 인도로 넓힌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어기는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집회 금지 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지난 21일에 17개 단체에 집회 금지 공문을 전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26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달했지만 이 중 7개 단체가 집회를 강행했다"면서 "시는 이들 단체를 고발했고 이번 주말에도 일부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광장 주변에서 예정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11명 늘어난 51명이다. 42명은 현재 격리 중이고 나머지 9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병원 내 감염이 의심되고 있는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에서는 총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은평성모병원 입원 환자인 P(75·남)씨와 K(64·남)씨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환자 모두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종로구가 거주지인 P씨는 지난 11일부터 은평성모병원에 입원해 폐렴 치료를 받던 중 1차 음성, 2차 양성 판정을 받았고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한 뒤 실시한 3차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종로구가 거주지인 P씨는 지난 11일부터 은평성모병원에 입원해 폐렴 치료를 받던 중 1차 음성, 2차 양성 판정을 받았고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한 뒤 실시한 3차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을 받았다. 앞서 병원에서 P씨를 간호하던 아내(627번 환자)도 지난 23일 확진돼 격리 치료 중이다.

은평구민인 K씨는 지난 8~18일 신우염으로 은평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후 24일 아내(869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중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 2명이 추가되면서 은평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7명이 됐다. 입원 환자 3명, 환자 가족 2명, 이송요원 1명, 간병인 1명이다.

시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의료진 425명을 검사하고 있다. 현재 은평성모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328명이며 전체 직원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은평성모병원에 9개반,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상황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클린존병동을 중심으로 환자를 재배치하고 있다"며 "간병인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 1일 이후 병원 방문자 중 발열 등 유증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를 통해 검사하도록 안내했다"며 "역학 조사를 마무리하고 증상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지역 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동구에서는 명성교회 부목사 등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 우선 구는 명성교회 부목사와 1차 밀접 접촉자인 348명의 검체를 채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 1차 밀접 접촉자 외에 확진자와 같이 예배에 참여한 교인 명단을 확보해 전수 조사한다.

구 관계자는 "명성교회에 현장대책반과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와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기타 교회 소속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검사를 하루빨리 완료할 계획"이라며 "강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명성교회 관련 전담 콜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추가로 나온 교인 명단에 대해서는 능동감시자에 준하는 관리를 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명성교회 시설을 소독하고 폐쇄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머문 장소와 일대 지역에 대해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SH공사, '로또 분양' 마곡지구 9단지 내달 청약

## 분양주택 962세대 모집 공고 전용면적 84㎡ 분양가 6억원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분양주택 962세대에 대해 2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3월 중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만을 적용받는다.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약 자격 차이를 충분히 숙지해 청약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시행한 가점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정은 청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조감도. /SH공사

서류심사 시 소득제한범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시 130%)로 공공주택지구 대비 다소 상향되며 세대 구성원의 자산도 자격요건에서 배제되는 등 적용기준이 다르다.

마곡 도시개발지구 9단지는 전용면적 59㎡, 84㎡로 구성된 분양주택 962세대와 국민임대·장기전세 567세대 등 총

1529세대로 구성된 소셜믹스 단지다.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59㎡는 평균 5억885만4000원, 84㎡는 평균 6억7532만3000원이다. 입주자는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견본주택은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한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다음달 9일부터 10일까지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등 특별분양 청약접수를 진행하고 16~18일에는 일반 분양 청약접수를 한다.

당첨자 및 등·호수 배정 발표는 3월 25일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계약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이고 2021년 2월 입주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방역 중인 명성교회

명성교회 부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새마을지도자강동구협의회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코로나19 확산... 119 구급대 출동 20배 ↑

코로나19 의심환자 질본으로 신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19 구급대 출동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 환자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2월 첫째 주(1~7일)에 14건, 둘째 주(8~14일)에 84건, 셋째 주(15~21일)에 292건이었다.

셋째 주 출동 건수는 첫째 주의 20.9배였고,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41.7회였다. 하루 출동 건수가 첫째 주 이례를 모두 합한 것의 3배였다는 얘기가.

코로나19 관련 상담신고 건수는 2월 1주차 414건에서 2주차 573건, 3주차 1668건으로 급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 신고 당시에 이송 대상자의 세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일반환자로 분류되면 일반 구급대가 출동한다"면서 "이송 과정이나 병원 진료단계에서 해당 환자가 코로나19 의심으로 분류돼 검체 검사를 실시하면 이송한 구급대원이 별도 시설에서 확진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격리 조치 된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7시 기준으로 8명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이 격리돼 있다. 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 교통위반과태료 고지부터 납부까지 모바일로 한번에

문자·카카오톡으로 고지서 전송

그동안 종이 우편으로만 전달됐던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다음달 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 고지서의 배송 지연과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 등기우편의 생산·발송 업무에 드는 14억원의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내달 2일부터 두 달간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에 대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기간에는 모바일 고지내역을 확인한 납세자에게도 기존 등기우편을 병행 발송할 예정이다.

마체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납세 편의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소요되는 종이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더 많은 스마트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